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연중 제 13주일 제37권 32호(가해) 2017년 7월 2일

[묵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어찌하여 네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여
그 교를 행하느냐? 배교하여라."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받들니다.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내게 배교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때려죽이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는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의 진리를 알려거든 들어 보십시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조성하는 이요,
착한 이를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저는 감히 주교각하께 저의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힌 탁덕 김 안드레아.

-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의 편지에서 -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제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서성용 베드로, 윤일산 바오로, 이금만 엘리사벳, 이용식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홍정림 요안나, 민석준토마스 &미에 & 민영준 마르코 & 영라이 &리나& 미아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김진엽 마리아, 변진섭 다두, 조지 가보라, 고준희 제임스, 이경영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이상신, 권순봉 요안나, 이성서 요셉 & 이화문 마리아
	(생) 손석 스테파노, 조아라 아베라인 &조아름 카리사, 글로리아 성가대원들, 유철희 바오로, 송명환 베드로, 박희자 마리아, 손왕엽 윌리엄, 김명스텔라, 어려운 이웃들, 윤성진 안드레아가정, 윤선희로사가정, 박인식 토마스, 변복순 베로니카 & 심민숙 카타리나 & 남해나 베네딕타 최재은 베드로 & 최길숙 요셉파나, 우일환 모이세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오창근 베드로 사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오염과 기후 변화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염도 있습니다. 이는 교통, 공장매연, 토양과 물의 산성화 물질, 비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일반적인 농업용 독극물을 통하여 발생합니다. 상업적 이익과 관련된 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기술은 문제가 옅히고 설킨 관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한가지 문제를 해결한다지만 다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21.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더불어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맹독성이며 방사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과 기업, 건설과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더불어 의료 폐기물, 전자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때 아름다웠던 풍경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버린 것을 탄식합니다. 산업 폐기물만큼이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들도, 비록 지역의 독성 물질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몸속에 유독 물질이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22. 이러한 문제들은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버리는 문화는 물건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생산된 종이의 대부분은 재활용 되지 않고 버려집니다. 우리는 자연생태계의 순환 과정이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식물은 초식 동물들이 먹는 영양분을 합성합니다. 그 다음에 초식 동물들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유기배설물이 배출되어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 계속>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2Chronicles) 24,18-22

화답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태오(Matthew) 10,17-22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08	108	108
봉헌	268	268	255
성체	292	292	306
파견	108	108	343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홀리신 고귀한 순교의 피는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충남 솔피에서 아버지 김제준 이나시오와 어머니 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 신부님의 아버지는 본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는 열여섯 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36년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타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김대건 안드레아는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님은 선교하시다가 1846년 6월에 체포되어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오로지 이 땅에 천주교의 진교를 위해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26세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봉헌하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교회의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선각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목숨을 지켜 증거한 신앙은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선열들의 순교의 피로써 시작되고 발전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분들의 은덕으로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들 각자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가르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마태 10,19)

희생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로마 5,3 참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하여 우리 한국의 순교 성인들 모두 하느님과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 신앙을 증거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마음의 양식이라는 그 말

홍삼, 아로니아, 등 푸른 생선.
 좋다는 거 골고루 많이도 먹고
 여름이면 삼복마다 온갖 탕도 먹었지.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비대해졌는데
 마음은 어째서 더욱 더 흔들리며 피폐해지는가.
 아마도 밥을 입으로만 먹어서 그런가 봐.
 기름진 국을 마음에도 좀 떠 넣어 줄걸.
 날마다 때마다 먹는 밥,
 가끔은 마음에도 나눠주면 좋았을걸.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재용 안드레아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송인선 안젤라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박혜경 레나타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4반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7월1일부터 2017년~2018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사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 사도협의회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유임 되었습니다.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임명하신 사목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장 : 최기남 야코보
- 부회장 : 박인식 토마스, 오혜숙 루시아
- 총무 : 현석주 아오스딩
- 부총무 : 정판영 레오, 김명제 아가다
- 재무분과 : 김병태 요셉
- 소공동체 : 김준 방지거
- 전례분과 : 김성현 유스티노
- 복음화분과 : 이영석 크리스토퍼
- 시설관리분과 : 김찬구 요한
- 조정분과 : 김양금 안나
- 청소년분과 : 최이원 바르콜로메오
- 문화 / 체육분과 : 박계순도미니코
- 홍보분과 : 박경주요아킴

◆주일학교 방학기간 주일 미사 조정 안내

주일학교 방학기간에 9시반 학생미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성인 미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일미사는 아침 7:30과 11:00 미사만 있습니다.

- 실시기간 7월2일(주일)~ 8월 27일(주일)까지

◆주일학교 2017 여름캠프 사전 등록

- 주제: Catholic World of Harry Potter
- 장소: Santiago Retreat Center
27912 Baker Canyon Rd. Silverado CA 92676
- 일시: 8월11일(금요일) - 8월13일(주일)
- 사전등록일 6월 18일~ 7월2일까지, 선착순 30명
- 사전등록 후 참가비용 : \$60/person

◆2017 ~ 18년도 주일학교 등록 안내

- 등록: 오늘주일(2일) (주일학교 재무, 교장, 또는 사무실)
- 추가 필요서류: 세례, 첫 영성체, 견진 증명서
- 등록서 작성요령: 가정당 등록 학생이 1명일 경우 1~3 page, 등록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페이지 작성.
- Check payable to: 103 SKCC
(조기등록 할인(-\$20) 혜택 있습니다 : \$120, 100, 80)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 전후 30분
- 연락처 : 정테레사 ☎(310)650-6993

◆남가주 여성 제 43차 푸르실료 교육

- 수강생 : 변복순 메로니카, 심민숙 카타리나
- 일정 : 7월 6일(목) ~9일 (주일)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 봉사자 : 남해나 베네딕타
- 환영식 : 9일 (주일) 4시 PM
- 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909)709-3181

◆ 주보 광고에 협찬해 주신 광고주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 주십시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 2일 : 김밥(\$4), 사발면 (\$2, 토동봉사)
- 7월 9일 : 홍합미역국 (\$3, 토복 1,2)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교복 김대우 김 명 김선영 김성현 김정엽 박상준 박은영 박인건 박종열 반비오 윤선희 이재정 이재욱 이주창 이현주 이형삼 임 순 임한나 정판영 조준제 주상현 최태훈 이크리스	성전헌금	강순복 김교복 김대우 김정엽 박상준 박인건 반비오 윤선희 이재정 이주창 이현주 이형삼 임 순 정판영 조준제 최태훈 이크리스
	합계:\$2,710		합계 : \$1,320
주일미사헌금 :\$2,337	주일학교 등록금 : \$680	주보광고비 : \$120	

남가주 소식

◆제30차 성령쇄신대회

- 주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7)
- 일시: 8월 27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 28일(주일) 오전8시-오후6시
- 장소: Redondo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1935 Manhattan Beach Blvd, Redondo Beach, CA 90278)
-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 (서강대 교수)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님 (인천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최영배 비오 신부님 (들꽃마을 창설자)
- 참가비: \$20 (당일 현장 \$25)
- 준비물: 목주, 도시락

(도시락주문 가능-8/13 주문마감, \$7/1개)

주의사항: 장소사정상 국물이 있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합니다.
도시락은 장내 반입이 안되므로 바깥 텐트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봉사회
- 문의: 강혜원 아네스(310-780-0369)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2박3일 침묵피정

- 주최: 미서부 한인 CLC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일시: 8월4일(금)~6일(주일)
- 장소: Prince of Peace Abbey
Oceanside, CA
- 마감: 7월 23일(주일)
- 문의: 하 세실리아 ☎ (323)578-2230

◆예수성심 피정의 집 전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2 오신재 데히틸다 (713-4926)	배태임 안나 07/05(수)오전11시 성당
	2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이근태 세르지오&정기은비오 07/15(토) 오후6시성당 강당
	3	3 한길전례 스콜라스티카 (218-7824)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07/15(토)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김다두 &아네스 07/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전희 로사 07/16(일)12시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		07/21(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7/18(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07/09(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최미열 클라라 07/16(일)오전10시 델톤파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07/14(금) 오후7시 성당2층R3
	2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윤현화 리디아 (735-3722)	고 체칠리아 07/14(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안희정스콜라스티카 07/09(일)야외모임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장 안드레아 07/14 (금) 오후6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07/12(수)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어깨에 힘 좀 빼게

운동경기에 나선 선수가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긴장하고 몸이 굳어서 오히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부 기자시절 험상궂은 범죄 혐의자나 나이 많은 형사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퇴직을 앞둔 선배가 "어깨에 힘을 빼야 진짜 기자가 된다," 고 했던 충고를 이제야 실감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별없는 욕심을 세우고 마음을 빼앗겨 매달린다면 그건 집착입니다. 집착은 갈수록 깊어져 폭력의 성향을 갖기도 하고 반칙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좋게 포장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남깁니다. 일을 할 때도 능력과 절차 대신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됩니다.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직위나 재산을 탐하는 일 등은 모두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얼마 전 미사 시간에 들었던 강론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상을 바라면 베풀지 말고, 농아 줄 수 없으면 붙잡지 말고, 해결할 수 없으면 고민하지 말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데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흔합니다. 욕심은 불만으로 이어져 주변 사람을 불편케 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친 경쟁과 자본의 모순이 누적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친히 선택하시어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불만의 이유를 찾는 사람과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의 인생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세상에 올 때 우리는 모두 빈손이었습니다. 생명도, 가족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지금의 지위, 재산 등도 하느님 뜻에 따라 맡겨진 것들입니다. 이걸 영원히 자신의 것 인양 붙잡고 매달린다면 어리석은 집착

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는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스스로를 집착에 가두고 불안과 불만에 머무는 대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 흘러가는 시간을 감사하게 산다면 인생은 소풍처럼 즐겁지 않을까요?

◆탁은수 베드로 / 부산MBC 보도국 부장

[길을 찾는 그대에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의도 죄라고 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한 후에 하느님께 사함을 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성사로 모든 잘못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도 안고 가야 합니까?

☞ 설사 극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성사'에는 그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하는 치유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고 무조건 성사만 보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 절대 금물이지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비마저도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청할 것을 요구하십니다.(마태 5, 24 참조) 그럼에도 용서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고 사랑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너를 나도 같이 인정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용서는 그분 사랑에 힘입어 내게 아픔을 준 죄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만 가능하니까요. 하느님 앞에서 나도 벌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용서의 첫 걸음이며 완성임을 명심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상대의 죄를 잊어 '주고'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하느님께 사랑 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단순한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오만불손한 인간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에 응답하는 순수의 고백입니다.

◆장재봉 신부 / 선교사목국장

출처가 불분명한 유해 사진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12사도의 유해가 담겼다고 하는 성광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된다는 보고를 접수했다.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 은사와 영성이 넘친다고 한다. 신앙교리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하며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어떻게 유해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경위와 출처에 대한 근거가 없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성인 유해 공경이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과도하고 잘못된 인식으로 약탈이 속출해, 진짜 유해와 가짜 유해가 구분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중복 소장되기도 하였다. 성인 유해 공경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교도권은, 확실하고 ‘진정한’ 성인 유해만 인정된다는 지침을 거듭 확인해왔다. 현재 12사도의 유해를 모았다고 하는 성광 사진이 국내에서 유포되는데, 그 확실한 교회사적 근거가 없다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해라는 ‘사물’ 자체의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힘을 믿게끔 하는 오류이다. 만일 유해라는 ‘표지’를 통해 그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인들에 대한 공경이 이루어지고 성인들의 기도를 청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유해는 은총을 위한 하나의 표지일 뿐, 그 자체로 은총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셋째,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적 필요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에, 개인의 영예를 위해 은사를 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1코린 12,9)가 주어질 수 있지만, 이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주시는 것”(1코린 12,11)이다. 은사는 “바람이 불고 싶은 데로 부는 것처럼”(요한 3,8)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며, 은사의 진실성과 올바른 실천에 관한 판단은 교회 교도권에 속한다.

넷째, 성인들에 대한 ‘공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한 ‘흠숭’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인 공경의 이유는, 그분들 삶의 모범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주시도록 성인들에게 청하는 데에 있다. 과장된 유해 공경으로 인해,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려야 할 찬미와 흠숭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또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경시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일부 저급한 웰빙 문화식의 치유 흐름이 교회 안에도 번져서는 안 된다. 불확실한 유해에 매달리는 것은 신앙의 미성숙함을 반영한다. 우리는 미사와 성체강복, 성체조배를 통해 예수성심을 묵상하며 그 신비 안에 머물러야 한다.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모시는 것보다 더 큰 은총과 기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바라보며 묵상해야 할 대상은, 불확실한 유해가 담긴 성광이나 그 사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가 모셔진 성광과 감실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마음만이 진정한 치유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박준양 세례자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수,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총무, 교황청 국제신학위원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썬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로) 310-908-8823
CA Inc.Lic.#O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플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